

인구 10만의 명실상부한 ‘자족도시’ 건설에 매진



최 홍 목 | 계룡시장

1949년 충남 논산 출생
2004년 중부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1998년 제3대 논산시의회 의원
2002년 제4대 논산시의회 의원
2003년 초대 계룡시장
2006년 제2대 계룡시장
2014년 제4대 계룡시장

▲ 당선된 소감은?

먼저 저를 선택해 주셔서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계룡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저를 다시 뽑아주신 것은 초대와 2대 시장으로서 시장운영 경험을 토대로 계룡시를 명품도시로 만들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이다.

이번 당선이 앞으로 民·官·軍 화합과 자족도시 계룡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라는 채찍질과 계룡을 명품도시로 만들길 원하는 시민들의 간곡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제 임무를 성실히 다하는 날, 깨끗한 공직자로 계룡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수놓아 시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고 싶은 바람이다.

▲ 현재 계룡시의 주요 현안과제는?

계룡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규모가 작다 보니 공공기관이 부족한 편이다. 그 동안 많은 노력으로 유치목표 6개 기관 중 3개 기관을 유치하였으나, 향후 법원 등기소, 경찰서, 교육지원청의 유치를 위해 핵심기관 지속 건의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 마련을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올바른 인격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고려해 나가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인프라 확보 사업으로, '엄사~노성 간 국도지선 개설 사업', '두마~연산 간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선 사업', '신도안~세동 간 도로개설공사' 등 계획 중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하대실 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낙후된 양정지구에 체계적인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정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마지막으로, 2016년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 '계룡세계軍문화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역점 사업 및 공약은?

명품도시 계룡을 만들고 싶어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든다)'의 심정으로 '시민 중심 11대 공약'을 내세웠다. 11대 공약, 43건의 세부 공약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 ◎ 『보편적 복지를 향한 광의의 복지정책 실현』 5건(종합사회복지관설립, 1,000원 효성택시 운행, 노인회관 증설 등)
- ◎ 『계룡 '사랑 공동체' 구축』 3건(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립, 보훈·軍 관련 및 사회단체 지원, 계룡·民·軍 화합의 날 개최)
- ◎ 『문화 여가공간이 충분한 명품도시 조성』 4건(문화재단 설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계절 예술공연 축제 개최 등)
- ◎ 『생활체육의 대대적 육성 지원』 3건(종목별 시민 체육단체 공간 시설 확충 및 운영비 적극 지원, 금암동 천마산 금남정맥 구간 등산로 정비 등)
- ◎ 『권역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8건(크린아파트 조성, 두계 1,2리 재개발 추진, 계룡역 역세권 개발 등)
- ◎ 『경제 순환체계를 갖춘 풍요로운 자족도시 건설』 3건(지역경제 순환센터 건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센터 설립, 입암공단 기업 조기 유치)
- ◎ 『양질의 교육 명품도시 육성』 4건(평생학습관 설립, 합동 교육 협의체 구성, 신도안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중·고교 기숙사 건립 지원)

● 특집8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 ◎ 『경제가 살아나는 관광 도시 조성』 4건(향적산 ‘산림치유센터’ 조성, 세계軍문화축전 개최, 도민 체전유치, 전국 시니어 건강 페스티벌 개최)
- ◎ 『주민편의 최우선 도시 조성』 5건(국도 4호선 우회도로 착공, 남선라~세동 간 연결도로 착공, 공공기관 유치 등)
- ◎ 『재난관리 체계확립』 2건(방범·재해 사각지역 CCTV확충, 시민안전센터 설치)
- ◎ 『계룡브랜드의 국제화』 2건(세계군사도시 연맹 결성 등)이다.

역점사업으로는 최근 향적산 문제로 분열된 민심을 화합으로 이끌고자 향적산 일대 60만 평을 市가 매입하여 「산림치유센터」로 명소화하고, 1,000원 효성택시 및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등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을 향한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실현에 매진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528억 원 정도인 지방교부세도 1,000억 원 이상 따낼 수 있도록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대실지구와 하대실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도시기반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경제 순환 고리를 만들겠다.

▲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저의 모든 정치철학은 바로 ‘孝’와 ‘이웃사랑’에서 시작된다. 평생 ‘효성’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으며 이번 선거 슬로건이 「효소정치」였던 만큼, 시민을 효성으로 모시고 막힘없는 소통으로 시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려고 노력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중심 11대 공약 중 최우선 근간이었던 ‘孝’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향한 광의의 복지정책 실현’을 최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그리고 주거, 교육, 노동, 多문화가정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으로 시민의 복지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광의적 개념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토록 하겠다.

또한, 오지마을 어르신, 장애우를 대상으로 1,000원만 내면 계룡시 관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타는 사람은 편해서 행복’ 하고 ‘태워주는 사람은 보람이 있어 행복’한 수요응답형 「효성택시」를 운행하겠다.

100세 시대 노인이 공경받고 노후의 시간이 황금기가 될 수 있도록 ‘공공부조 확대’, ‘노인회관 증설’, ‘노인체육시설 증설’과 ‘노인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 「골드 100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 외에도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 확대’, ‘여성과 장애우 자립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복지정책 실현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2013년 계룡시 개청 10주년을 맞이하며 2014년을 계룡시 '제2의 도약기 원년'으로 정하였다. 앞으로 '계룡軍문화축제의 세계화' 등을 통해 '글로벌 국방수도'의 면모를 갖추고, 대실지구와 하대실지구 개발로 인구 10만의 명실상부한 '자족도시'의 모습을 갖추나갈 것이라 본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평생 효성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듯이 시민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막힘없는 소통으로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3대 계룡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지난 4년간 계룡시 발전방안을 위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다. 이러한 고민과 생각, 경험을 토대로 반드시 계룡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신 계룡시민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위대한 결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직 시민을 위해 앞으로 4년간 열심히 일해 오늘의 승리가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승리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저의 평생 신조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원칙과 '부와 명예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철칙 속에 평생을 살아온 만큼 계룡시 역사 속에 깨끗하고 정직한 계룡시장으로 남을 것을 약속드린다.

